

## 논평 : 濟州島 심방에 대하여

임        돈        회\*

지금 최선생님은 거창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무속’이란 사실상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무속 학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신무와 세습무권이 나누어져 있는가? 그것도 같은 나라에서 그 원인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몇십년 동안 의문시 해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의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 최선생님은 결론 1과 2에서 답을 해주셨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방계통 북방계통의 종교현상이 지역적으로 다르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전파적인 설명이죠. 한마디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둘이 하나, 하나가 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가 없다.

결론 3.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는 야면적 요소를 공통으로 하여 비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순한 종교 형태의 비교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에 접근 될 수 있을 것이다”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회구조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에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곳에서 사회적인 구조와 여러 변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다른 기회에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동국대